

# 제작공정 현대화 이룬 문학출판 新명문

## 실험정신 내세우며 '젊은 작가들의 텃밭' 자임하는 세계사

문을 연 지 5~10년 안팎의, 그래서 출판업 무의 기틀이 어느정도 확고히 잡히고 여태까지의 성과와 지향하는 출판방향, 편집자들의 출판장으로서의 정신, 그리고 우리출판의 미래전망까지를 고르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전문출판사들을 지면에 불러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출판사초대석'이 이번호에는 첫회의 동문선에 이어 세계사를 찾았다.

동문선과 세계사가 그렇듯 이 취지에 맞추어 지면에 초대될 출판사들은 결코 낮은 이름들이 아니다. 그저 미래 한국출판의 '얼굴'이 되고자 야무진 꿈을 품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출판사들이다. 우리가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출판사들의 자기자랑이 아니라 책만드는 사람들의 정신이다. 저자와 독자를 잇는 가교로서의 그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싶고, 한편의 책이 생산되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하고 싶다. 그런점에 있어서 세계사는 우리출판계에서 보기드물게 제작여건의 현대화와, 출판과 자본이 '행복하게' 결합한 경우여서 주목을 더 끈다.

세계사의 편집실은 흔히 말하는 '대지작업'이란 게 없다. 그에 앞서, 문학전문출판사라면 으레 수북히 쌓여 있게 마련인 원고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디스켓 몇장에 천여장 분량의 장편소설에서부터 1만장에 이르는 대하소설의 원고를 '간편하게' 담아온다. 그것도 귀찮아 "컴퓨터통신으로 보냈으니 받아보라"는 전화 한 통하면 끝이다. 그렇게 받은 원고는 붉은 사인펜으로 교정을 보기 위해 초교용지를 뽑는 일도 없다. 컴퓨터에 넣어둔 채 화면을 보고 세계사 나름의 약물로 바꿔주고, 띄어쓰기, 오자를 수정한 후 바로 컴퓨터 편집을 하여 인쇄소로 넘긴다.

이러한 업무의 간편화, 그를 위한 시설투자로 인해 지난해 초 편집, 영업, 홍보 담당을 포함해 18명에 이르던 직원이 같은해 말 12명으로 줄었다는 데도 아무 불평이 없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세계사뿐 아니라 많은 출판사들의 추세일 수 있다. 정은숙 편집장은 대지작업, 교정 등에 소요되던 인적자원이 작업의 현대화·전문화로 대폭 준 반면 기획쪽이 더 보강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가 이같은 현대화·전문화를 반가와하면서 또 한 크게 우려하는 것은 '문학의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곧 "문학출판을 하는 진짜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는 것이다. 가



소수정예! 세계사 사람들은 스스로를 '전문가'라 부르는 데 전혀 주저않는다.

령, 천상병 고은과 같은 지극히 개성적인 인물과 마주하고 받아든 작품들과, 컴퓨터화면에 규격화되어 나타난 작품의 맛, 나아가 평가는 같은 시 같은 소설이라도 분명 다르리라는, 지독히 드라이하게 변할, 자못 삭막해질 수 있는 문학환경에 대한 우려도 여기에 든다. "간편하고 편리해진 만큼 출판사나 작가나 그만큼의 대가는 치르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는 진명출판사 영업부 출신의 최선호(46)사장이 지난 83년 독립, 청한출판사와 책도매상 진명서적(87)을 운영하다 89년 시인이자 평편집자이던 최승호 씨로부터 세계사를 인수받은 후 명실공히 문학출판의 신예로 급부상한 전문출판사다. 인수 이후 계속되는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애초 내세웠던 "젊은 작가들의 텃밭" "실험정신"을 버리지 않고 고수, '작가세계 문학상' 등 화제속에 등장한 신인작가들의 잇따른 문제작이 베스트셀러가 됨으로써 더 유명해졌다.

이 출판사의 대표적인 출판물은 알려져 있듯이,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의 가치를 내걸고 나온 '마음글방' 시리즈(25권예정, 현재 18권), 가장 현대적인 프랑스문학을 선별 소개하는 '프랑스 문학선', 국내외의 한 작가씩을 집중탐구하는 기획으로 계간지의 확실한 위치를 다진 「작가세계」, 모더니즘·도시시로 요약되는 '시인선', 그리고 신예작가들의 문제작으로 채워진 '소설선' 등이 그것이다. 세계사목록 특유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무게를 얹는 작품·기획들을 선정하고 조절하는 '조타수'들이 황현산(문학평론가, 고려대교수), 김원우(작가) 두 비상근 편집위원이다.

프랑스문학 파트를 맡고 있는 함정임 씨는

## 사업가적 활달성 돋보이는 출판계 마당발

### 세계사 대표 최선호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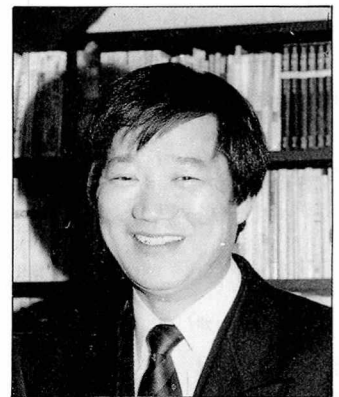
세계사의 대표이자 진명서적, 청한, 서울출판유통의 대표자라도 동시에 맡고 있는 최선호씨의 이미지는 흔히 전문출판사 사장들이 갖게 마련인 편집장이의 까다로움보다 활달한 사업가적 기질이 더 좌중을 압도하는 스타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창고·배송업무를 시작으로 본격가동에 들어간 서울출판유통에 올 1월1일자로 진명서적을 통합, 여기서 도매업무까지 겸하도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유통현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고, 5년여 동안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세계사를 2억5천의 흑자로 돌려놓음으로써(물론 자매사인 진명서적, 청한으로부터 빌어다 쓴 8억의 빚은 갚지 못한 채 있지만) 문학전문출판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정도 회복했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나와 2년여간 하던 국어교사 노릇을 접어치운 것은 출판을 해보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창과→국어교사→출판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자연히 편집부가 귀결될 것 같으나 그는 "영업부터 배워 출판업의 생리를 알자"는 나름의

문학도서 편집자가 지녀야 할 태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처럼 어설픈 편집자는 오히려 책을 망친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지요. 잘 닦여진 감식안, 해박한 지혜속에서 나오는 균형감각, 샘플같이 솟아오르는 정신을 갖고 편집자가 올곧게 살아 있어야만 전세계(문학)의 적으로 떠오르는 '상업주의'를 견제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학의 선은 쉽게 무너지지요."

—정혜옥 기자



소신에서 당시 참고서출판물로 유명하던 진명출판사에 입사한다.

"도서유통업무분야에서 출판계 입문 15년이 임박하는 지금까지 발을 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유통이 너무 낙후하기 때문이고, 유통이 낙후하면 출판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현장체험 때문입니다."

"그래도 자체에서 끌어낼 돈이 있었기에 유지할 수 있었지 한국적 상황에선 아무리 뜻이 좋은 출판기획도 자본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 경험론. "세계사 때문에 풀인 속 때문에 세계사를 자매사 중 가장 아낀다"는 그는 작가에의 꿈을 접고 문학출판의 든든한 후원자인 지금의 상태에 몹시 만족한다고.